

불자 세상보기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거의 매일 폭력 사건을 접하고 있다. 더 큰 충격은 폭력의 끝에 죽임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내의 가혹행위와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에 이르기까지 연령, 성별을 떠나 일상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누구도,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 모두 폭력이 난무하는 위험한 사회에서 생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폭력 가해자들의 변명을 들어 보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 사회가 폭력에 얼마나 관대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제대로 하지 않아 혼내주기 위해, 술에 취해서, 옆에서 하니까 동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라고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성폭력은 '성적 충동을 주체

하지 못해서' 라고 변명한다. 군대 내 가해자들 역시 '제대로 하라는 훈련의 의미'로 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인지, 얼마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은 옹호되어지고도 한다. 가정폭력을 가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가족 내의 갈등으로 인식하거나, 성폭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적 본능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거나 군대 폭력을 위계가 강한 군대 내에서 그 위계를 세우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폭력은 힘의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 힘의 우위를 가진 사람이 폭력적 방식으로 길들이려 하거나, 훈련시키거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힘을 가진 이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아동과 장애인, 하급자에 대한 피해가 유독 더 많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낮은 존엄성과 이들이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존엄함'이 부재하는 사회에서는 엄연한 폭력임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지도 않거나,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폭력이라는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는다. 폭력에 익숙해진 이들은 가정이건 사회건 군대건 장소에 상관없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도 함께 일어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폭력행위를 학습하게 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가해행위를 낳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폭력은 마치 전염성 질병처럼 세대 간 에 세습되고 계층 간에 전이된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폭력이 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면 사회적 개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적 차원의 개선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즉 폭력은 개인의 인권침해이며 사회적 테러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폭력의 사슬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폭

력적 태도나 방식을 거부하는 우리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상에서 사소하게 지나쳤던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들을 인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으로 해결책을 돌린다. 많은 이들이 폭력적 방식을 습득했던 근거지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또래와 선배들이었다. 폭력적 방식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갖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며 정당화되어져왔다.

중요와 폭력의 방식으로 대하던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한다. 사람에 대한 믿음의 근간,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사람, 가족이 믿어줄 때 그것을 지탱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 바로 가족이 가진 힘이었다.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족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가족에게 그 답을 요청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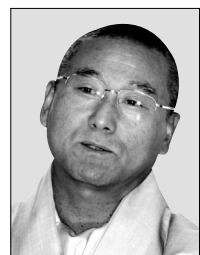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주어사지 복원에 대한 단상

여주지역 가톨릭계가 여주 주어사지 원형복원을 위해 설치한 연등에 대한 철거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주 주어사지는 조선 후기 박해를 받은 가톨릭 학자들을 보호하다 폐사된 역사적 현장이다. 이에 불교계 인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자



주어사의 복원 과정에서 흠어진 불교 문화재들을 다시 모으고 복원에 주어사와 천진암에서 희생된 불교인들의 공로를 인정해야한다. 또 국민들에게 이에 대해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점차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종종교인을 보 호했던 불교의 자비와 포용 정신을 널리 알리고 주어사 터를 종교화합과 평화로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2교구신도회와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주어사 터에 천막 법당을 설치해 부처님을 봉안하고 스님과 불자들이 계속 머물면서 천일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복원에 신유박해 때 천주학자들과 함께 수난을 당한 불제자들의 억울함을 해원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숭고한 자비심이 현재와 후대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진정한 종교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어사의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알려나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천주교계의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주어사는 종교 상생의 장소



조선후기 가톨릭 학자들을 보호한 천진암에도 불교계의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 사실 천진암은 주어사의 말사로 이 두 사찰은 불자들이 스님들이 서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곳이다. 정약용의 글에도 천진암과 스님들에 대한 감회가 있을 만큼 이곳은 가톨릭 신자들이 서학을 공부했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천진암은 불교사상의 근거지로 기록되어 정조 서거 이후 1802년에 대대적인 숙청을 당했고 절의 흔적마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천진암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희생당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불교가 서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불교의 상생과 화합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가톨릭은 천진암의 이런 내용을 모두 생각하고 천주교를 성지로 지정 천진암 법당 자리에 박해 당시 순교자 5명의 묘지를 모시고 있다. 주어사가 종교성지화되는 것에 앞서 불교계의 도움을 받아 서학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먼저 가톨릭이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가톨릭 성지가 된 천진암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희생되었음도 알려줘야 할 사실이다.

불자들 결집 계기로 삼아야



현재 여주시는 사지의 의미를 알려 명소로 만들고자 2012년 7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앞서 2011년에는 일반인과 순례객 등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길도 재정비해 '주어사지길'로 명명했다.

용주사 신도회와 제2교구 신도회는 매주 주어사를 찾아기도를 올리고 있다. 기도를 하며 지역 신도들이 이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어사 복원은 단순히 불교성지를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다. 제2교구 신도들은 24일 여주시에 이 같은 역사적 내용을 누락하지 말고 복원에 나서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불자들은 주어사지가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는 인근 천진암이 불교색이 배제된 가톨릭 성지로 복원된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다. 천진암 복원 과정에서 불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했다면 불교가 가톨릭을 보호한 부분이 뒤편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社說

노인 포교환경 이대로는 안된다

경료효친은 예로부터 한국적 유교 사상의 핵심이며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 왔다.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져가야 할 제일의 문화는 한국의 효(孝)문화"라며 아널드 토인비가 부러워했던 우리의 독보적인 문화이자 전통이었다. 10월 2일은 18번째 맞는 노인의 날이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의 현주소는 서글프기 짝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평균(15%)보다 무려 3배나 높은 45%로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군이 한국적 전통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노년세대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전쟁과 폐허와 가난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경제적 부를 일구었고, 밑거름은 일본의 압제, 가깝게는 군사독재 속에서 피 흘려 독립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주역이다. 자식 교육과 성취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행복과 노후 준비를 희생한 고귀

한 세대이기도 하다. 실버푸어, 노인자살, 고독사, 독거가구 등의 신조어가 이제 새롭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노인문제는 심화되고 구조화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노년세대 스스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와 사회의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변화에 우리 불교계도 앞장서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노년에 심신을 편안히 헤드릴 수 있는 포교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교계 각 복지관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시낭송회, 탁구대회, 걷기대회 등 다양하다. 새로운 노년상 정립을 위해 축제 역시 젊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런 일이다. 각 사찰들도 포교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맞춤형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 문화융성의 초석

서울시가 10월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는 빈가운 소식이다. 서울시와 조계종 총무원과 전통사찰 보유 종단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2014 서울시 전통사찰 Week'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시의 전통사찰의 문화유산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행사다. 전통사찰이라는 중요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6~9월 서울 전통사찰 58곳의 현황을 점검하고 요청사항을 청취해 △전통사찰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전통사찰 관광자원화 △전통사찰 시설정비 △전통사찰 제도적 기반 구축의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통사찰 주간은 전통사찰의 역사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의 일환이다.

개산대제 등을 맞아 다양한 행사 10월에 집중된 만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눈길을 끈다. 특히 조계사·봉은사·화계사·금전사·묘각사 등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사찰 5곳에서는 1일 사찰 체험 과정인 템플라이프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주요 과제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꼽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문화 융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시도야말로 문화융성의 기반을 놓는 일이다. 전통사찰이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보내 전통의 향취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지자체, 불교가 서로 '윈윈(Win-Win)' 하는 것이다. 이번 전통사찰 주간이 성공적으로 회향해 불교문화의 향유층이 확대되길 바라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원전을 제대로 읽어야 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티벳어 교재!
현재 티벳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일상 구어를 한국어 문법 체계에 기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
쉽게 배우는 현대 티벳어
1 티벳어 문자를 한국어 발음 체계 안에서 소리 낼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을 제시
2 티벳어 문자의 구성을 한눈에 제시함과 아울러 자음이 되는 기본자를 중심으로 결합되는 유두자, 첨족자, 전절자, 후절자, 제절자의 5종류 글자들을 우리말 발음과 함께 설명
3 티벳어 문법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박은정 저/사북배판/컬러/262쪽/값23,000원
무문관
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중문학 전공자인 안재철 교수의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문법 해설 및 풍부한 예문, 그리고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수암 스님의 선지를 꿰뚫는 강의를 어우러져 옛 선사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온전히 전해준다!
안재철·수암 공저/신국판/496쪽/값23,000원
초보자를 위한 한국선 입문서
간추린 한국 선사상사
선의 전래부터 고려말까지 한국선이 어떤 흐름 속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를 주요 인물들의 생애와 저서, 사상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한반도에선이 전래되는 과정, 구산선문의 성립과 종파의 융성, 조계종의 성립과 전개, 임제종의 융성과 고려말 삼사三師의 선사상 등을 다루고 있다.
정명식 저/국판/214쪽/값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